

심사총평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광보, 김건중, 김옥란, 전강희, 최원종, 허난영, 허순자

경기아트센터의 경기도극단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4회 창작희곡공모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68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극단은 작년 제 3회 공모부터 ‘경기도’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라는 큰 주제 아래 ‘역사’, ‘지역’, ‘청년’, ‘거주’, ‘비인간’을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경기도라면 시간적 배경은 과거, 현재, 근미래, 혹은 이 모든 시간대가 교차하는 등 흥미로운 설정이 돋보였습니다. 경기도의 지역성을 배경으로 남북한 문제, 재개발 건설,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등이 구체적인 일상처럼 그려지는 작품들이 다수였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심은 6명의 심사위원이 각자 별도로 희곡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총 14편의 희곡이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서)

- 나도 좋아, 핑크
- 납작 업드려 너를 응시한다
- 너와 나와 그
- 더미 가족과 도로 위의 불꽃놀이
- 두 개의 약속
- 막장인생
- 먼저 걸음한 여자
- 박신장
- 버닝: 타오르는 삶
- 상어는 죽었다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이름 없는 집
- 의빈성씨 즐기
- 8004

본심은 내부 심사위원 1인이 추가되어 7인의 심사위원이 진행했습니다. 모두 모여 위의 희곡 14편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희곡이 보여주는 세계가

흥미롭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양하고, 전개 방식이 설득력이 있어 심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학성뿐만 아니라 공연성, 특히, 경기도극단의 배우들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후, 공연성을 고려하되, 이야기가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띠는 작품을 선정할 것인지,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것인지 심사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버닝: 타오르는 삶>과 <세 개의 화령전 작약>을 최종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버닝: 타오르는 삶>은 동시대에 적합한 주제 의식을 지닌 작품으로 인물 설정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가 보편성과 설득력을 모두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다. 무거운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문체가 유머와 블랙코미디 사이를 적절하게 넘나들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개의 화령전 작약>은 수원이 낳은 인물로 널리 알려진 나혜석의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와 현재를 살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교차시켜 진행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독특한 극구조로 풀어내고 있어 기존의 나혜석을 다루는 작품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훌륭하지만, 올해 경기도 극단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연극의 힘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극작가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